

“고통받는 이들에 ‘조건 없는 사랑’ 전하고 싶어”

12·29 제주항공 참사 유족
광주 뮤지션



첫 앨범 '다시 십이월' 발매...참사 이후 삶 담아
“비슷한 트라우마 있는 모든 사람들 치유되길”



‘김세형과 들꽃’ 밴드

2024년 12월 29일, 평소와 다름없던 일요일 아침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렸다. 연말을 맞아 가족과 연인, 친구와 여행길에 올랐던 129명은 집으로 돌아오기 직전 끝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떠난 뒤 두 번째 설날마저 지나갔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하다. 세상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남겨진 유족들의 시간은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려 애쓰는 동안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덧나고 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더군요. 사고 전까지는 ‘사랑’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는 말에 불과했죠. 그런데 가족을 잃고 나니, 사랑이... 그저 조건 없는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김세형(29)이 주축이 된 밴드 ‘김세형과 들꽃’이 지난 13일 첫 앨범 ‘다시 십이월’을 발표했다. 12·29 참사로 누나와 매형을 잃은 김 씨가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상을 붙잡기까지의 시간을 음악으로 기록한 작품이다.

기자는 최근 광주 광산구 선운동의 한 카페에서 ‘김세형과 들꽃’ 멤버들을 만나 이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세형은 지역에서 꾸준히 공연을 이어온 뮤지션이자 음악 강사로 활동해왔다. 인디 무대에 오르며 전국을 다녔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기타를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갔다. 음악은 그에게 직업이자 일상이었다.

그러나 참사는 그의 삶을 통째로 흔들었다. 김세형은 “누나와 매형을 잃은 것도 크지만 그 이후에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가장 무서웠다”고 했다. 당연하던 연락, 당연하던 약속, 당연하던 내일이 사라지자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았다.

밴드가 결성된 것은 지난해 5월쯤이다. 침체돼 있던 시기 곁을 지켜준 것은 동료들이었다. 베이시스트 김민호(22)와 드러머 김희웅(31)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건네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 쌓이면서 김세형은 다시 곡을 쓰기 시작했고, 모인 곡들을 묶어 앨범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이르렀다.

이번 앨범은 총 10곡으로 구성됐다. 김세형은 “12·29 참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의미를 억지로 구겨 넣고 싶지는 않았다”며 “결국은 ‘사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했다.

앨범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첫 트랙 ‘사랑의 프로젝트’다. 노래 대신 단어로 채운 스포큰 워드(spoken word) 형식으로, 50여 명이 “사랑해”라고 말한 음성을 하나씩 모아 이어 붙였다. 누군가의 웃음 섞인 목소리도 있고,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목소리도 있다.

김세형은 “사고 이후 너무 힘들고 피곤했을 때, 무언가를 해야 위로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듣기만 해도 되는 위로가 필요했다”며 “조건 없이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이어 “참사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지친 사람들, 직장과 학교에서 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게도 조건 없이 건네는 이 말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9분 트랙 ‘반짝반짝’은 김세형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데모 버전이 그대로 실린 곡이다. 한국작가회의가 펴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시집에 실린 이원규 시인의 시에서 출발했다.

“그대 떠난 첫 갈지 않아 / 어금니를 꼭 물고 살아보려고 하네 / 한 겨울밤, 하늘 보며 손을 흔들어 / 아는 척 좀 해줘요, 내 두 눈을 보며.”

날것의 목소리와 문장이 겹치며, 남겨진 이들의 시간을 담담히 전한다.

앨범 제작에는 여러 손길이 더해졌다. 밴드 로고와 앨범 커버는 김세형의 아버지이자 화가였던 고(故) 몽피 김경학 씨의 작품이다. 딸을 떠나보낸 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그는, 생전 마지막까지 아들의 음악을 함께 준비했다. CD 케이스와 MD 디자인은 ‘sisi(탁시현)’가 맡았고, 마스터링은 제주 ‘스튜디오 랩프 사운드’를 운영하는 강경덕 엔지니어가 담당했다. 앨범 배급은 동양표준 음향사를 통해 이뤄진다.

김세형은 앨범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냐는 질문에 “희생자들뿐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언급했다.

“17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 친구들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함께했던 봉사자들과 기자들, 소방과 경찰까지 모두 비슷한 트라우마 속에 있을 겁니다. 이번 앨범을 만들며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매일 실감했고, 공항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들에게도 그 힘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아이들이 가꾸는 ‘정원사의 작업실’

고흥 꿈꾸는예술터, 23일까지 선착순 모집

아이들의 추억은 누군가 준비한 무대 위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공간 속에서 더 다채로워진다. 땅치 소리와 물감 냄새가 어우러진 자리에서 놀이 터는 조금씩 배움의 장으로 변한다. 초등학생들이 예술 공간을 직접 가꾸는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고흥 꿈꾸는예술터(꿈터)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 ‘정원사의 작업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회차별 10명씩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꿈터를 찾는 어린이들이 공간의 ‘정원사’가 되어 목공과 미술 활동을 통해 예술터 일부를 직접 가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공간의 변화를 이끄는 주제로 참여하도록 기획한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모두 4차에 걸쳐 운영된다. 오는 28일에는 게시판을 제작하고 벽화의 밑작업을 진행한다. 3월 7-8일에는 안내 표지판 제작과 벽화 채색이 이어지며, 3월 14일에는 율타리 만들기과 쓰레기함 꾸미기 활동을 펼친다. 참여 어린이들은 협업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완성하며 공간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함께 키우게 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은 꿈꾸는예술터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지에 고흥군 문화도시센터장은 “아이들의 작은 손길이 모여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함께 가꾼 경험이 예술터를 넘어 서로를 이어주는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고흥 꿈꾸는예술터 전경.

(고흥군 제공)

‘국제레지던시’ 결과도 선보이고 경험도 공유

광주시립미술관, 22일까지 오픈스튜디오

‘뜨개질’로 재활용품과 실을 엮어내고, 종이에 타자기를 이용한 작업도 선보이고.

국제레지던시에 입주한 캐나다 작가 2인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가 열린다. 20일부터 22일까지이며 오픈식은 20일 오후 4시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올해 캐나다 교류 관련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한다. 이번 캐나다 작가 2명은 아리안 발라드와 터커 캡으로 각각 실크스크린, 동판화를 작업한다.

아리안 발라드는 과자 봉투를 비롯해 일회용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병을 활용해 ‘뜨개질’이라는 전통적 기법으로 재활용품과 실을 엮어낸다. 터커 캡은 서남동 인쇄의 거리에서 수

집한 종이 위에 타자기를 이용한 작업을 보여준다. ‘문자’ 자체의 텍스처, 지식의 재현과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작가들은 서남예술촌 인쇄의 거리와 판화 기술 기반 지역 작가 스튜디오(김상연, 정승원 외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포도나무갤러리 등 방문하며 예술적 경험을 했다.

윤의 시립미술관장은 “국제레지던시가 두 작가의 조형언어를 새롭게 확장, 구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창작 환경 체험을 다변화해 폭넓은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강지수(회화)와 정혜성(평면, 설치)을 선정, 캐나다 몬트리올에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파견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리안 발라드 작 ‘풍경을 내려내기’

광주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동행 공연’ 성료... ‘티오피 콘서트 밴드’ 출연 큰 호응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동행 공연-오케스트라로 만나는 추억과 공감’을 성료했다.

이번 공연에는 ‘티오피 콘서트 밴드’가 출연해 오케스트라 연주를 선보였다.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친숙한 레퍼토리를 선사하며 세대의 기억과 공감을 이끌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은 재단이 2025년 ‘지역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 성장 우수재단’으로 선정되며 확보한 시상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업 후원으로 창출한 성과를 문화예술 나눔으로 연결해 후원의 사회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돼 돌봄 현장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협력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문화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광주문화재단이 최근 진행한 ‘찾아가는 문화동행 공연-오케스트라로 만나는 추억과 공감’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계기를 마련했다.

배동한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공연은 재단의 메세나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도 지역사회·기업·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 나눔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 | |
|-----|------------|---------------|
| 본점 | 서석동 남동성당 옆 | 062) 227-9940 |
| | | 062) 227-9970 |
| 서울점 | 종로 5가역 1층 | 02) 765-9940 |
| 순천점 | 중앙시장 앞 | 061) 752-9940 |